

“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 밑바탕...남해안 벨트 중심지 될 것”

노관규 순천시장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

우주·바이오·이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박차 순천형 공공의료·AI 첨단농장... ‘순천판 디즈니’ 육성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생태 경제의 가능성을 발견한 순천시는 남해안 벨트 중심지를 구축하고 우주·바이오·이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며 ‘생태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를 완성해나갈 것입니다.”

500만 관람객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진두지휘한 노관규(사진) 순천시장은 최근 열린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3년의 시정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석 달 동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치러온 노 시장은 “민선 8기를 시작하고 올해까지 1년은 순천이 어떤 가치와 잠재력을 가진 도시인지, 순천이 하는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꿨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그는 “남도 하단 작은 도시의 성공을 배우기 위해 200곳이 넘는 기관과 단체가 다녀갔다”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확실한 이정표를 제

시하며 ‘남해안 벨트’의 청사진을 그렸다”고 덧붙였다.

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는 ‘생태 경제’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한 것을 꼽았다.

순천만습지를 품은 순천시는 지난날 프랑스 아미앵에서 열린 ‘탐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 참석해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세계 도시 연대의 선봉에 섰다.

지난달 말 기준 정원박람회를 통한 직접 매출액은 총 286억원에 달한다. 입장권 수입이 1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식음료 63억원, 관람차·숙박시설 등 4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박람회 개막 이전인 올해 1~3월 순천지역 숙박시설의 주말 평균 투숙률은 56.3%에 불과했지만, 개막 첫 달인 4월은 같은 기간 기준 86%, 5월 88% 등으로 뛰었다.

국가정원에서 머물며 정원을 체험하는 ‘가든스 데이-윌라게’는 숙박률이 4월 95.1%, 5월 98.3%, 6월 95.2% 등을 달성하며 체류형 여행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순천의 경쟁력은 미래 산업과 연계된 산·학·연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최근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국립순천대학교가 ‘글로벌대학 30’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글로벌대학에 선정되면 5년간 1000억원의 파격적인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순천시는 5700억원 규모 포스코리튬솔루션(주)투자협약 등 대기업 투자를 잇따라 유치하며 우주·바이오·이차전지 등 미래 지식 집약형 사업들을 핵심 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울촌 1산단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을 유치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한화 측은 누리호 등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위한 단 조립장 구축에 5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순천시가 주목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 가운데 하나인 ‘그린 바이오산업’과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도 순항하고 있다.

순천시는 승주읍에 총사업비 320억 원 규모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확정하고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승주읍 농업기술지원센터,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와 연계해 그린 바이오 산업체 육성을 위한 중심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오래된 산단을 최첨단 기술이 집결된 ‘스마트 산단’으로 바꾸는 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노 시장은 최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최적 부지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연향들을 선정한 것에 대해 “차세대 공공자원화는 오로지 ‘시민의 행복과 삶’을 기준 삼아 현명하게 풀어야 할 문제”라며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일류 시정을 위해 이번 입지 선정이 개인의 이익이나 정정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순천형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역대 연봉 청년농’을 키워내기 위한 인공지능 스마트팜(AI 첨단농장) 조성, 사람이 걷기 좋은 ‘대자보 도시’ 전환, ‘순천판 디즈니’를 탄생시키기 위한 웹툰·애니메이션 산업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의지를 보였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한 가족 8지붕’ 여수시청사 2개로 통합되나

여천군 등 ‘3여’ 통합 후 8개로 분산...건물 낡고 시민 불편·갈등 초래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용역 계약 체결... 기존 청사 통합건립 조사

여수시가 8개로 나뉜 시청사를 2개로 합치는 통합 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5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지역 내 분열, 갈등을 일으킨 청사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지 주목된다.

시는 올해 11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재정

심사, 의회 의결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정 절차가 순조로우면 내년 하반기 실시설계 등에 들어가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시급성을 고려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립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여수시 청사는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3

여(麗) 통합 이후 8개로 흩어졌다. 청사 건물이 낡고 비좁은 데다 사무실이 분산돼 공무원, 시민 불편과 함께 청사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분열, 갈등이 생기고도 해 진척되지 못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해 취임 후 학동 본청사와 여서동 여서청사 등 양(兩) 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지어진 지 40년이 넘는 본 청사는 리모델링하고 바로 옆 주차장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을 짓는다.

현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쓰는 여서청사는 수산청이 이전하고 나서 리모델링한다.

/여수=김정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이상철 곡성군수 등 관계자들이 반다비체육센터 개관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 반다비체육센터 개관...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곡성읍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반다비체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센터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 총 66억원(국비 30억원, 군비 36억원)이 투입돼 곡성읍 일원에 들어섰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992㎡ 규모로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실내체육관 1동과 체력단련실, 론볼장, 가족사워실, 장애인 전용 화장실, 곡성군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곡성군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등 부대 시설을 갖췄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문화공간이 마련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군 반다비 체육센터가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대표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보성군, 고향사랑기부하면 숙박할인권 제공

제암산자연휴양림·대원사 템플스테이 등 관광형 답례품

보성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 내 휴양림 숙박할인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성군은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제암산자연휴양림 숙박 할인권·전남권환경성질환경예방관리센터 숙박 할인권·대원사 템플스테이·다향울림촌 체험관·울포해수욕장센터 이용권·천연염색 공예관 숙박 및 체험권 등 관광서비스형 답례품을 제공한다.

제암산자연휴양림과 전남권환경성질환경예방관리센터는 옹기면 제암산에 위치한 숙박 시설이다. 무장애 데크길과 시원한 계곡을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다.

대원사 템플스테이는 1박 2일 동안 나를 찾는 여행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아름다운 보성 천봉산의 자연 속에서 티벳 불교의 수행법 중 하나

인 ‘로종’을 체험하며 힐링할 수 있다.

다향울림촌에서 진행되는 ‘녹차 족욕+말갈 만들기’도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다. 차를 마시며 득량만 권역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쉴 수 있다. 각종 체험뿐만 아니라 대규모 행사에 따른 시설대여도 할 수 있다.

기부액수에 따라 이용 할인권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의 예약사항이나 추가금액 결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보성군은 설명했다.

보성군은 숙박이내 체험 이외에도 보성사랑상품권, 이동 빨래방, 지역 농·수·축·특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참신한 답례품으로 기부를 이끌고, 이 기부금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여수시,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

여수시가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는 다음 달 말까지 환경오염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사·단속’은 오염 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진행된다.

연등천과 쌍봉천 등 하천과 수산동물·과실·채소 가공·처리 사업장 등이 포함된다.

여수시는 시는 2개 단속반을 편성해 7~8월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 물질을 유출하는 행위를 감시할 방침이다.

수질 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여수시는 집중 호우 등으로 고장·훼손된 수질 오염 방지시설 등 복구도 추진한다.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 인력을 활용해 피해업체 기술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 “해당 사업장에서는 환경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등 여름철 대비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정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8회 5회 광양 음악분수 운영 확대 서천·마동 8월 31일까지

광양 음악분수 운영 확대 서천·마동 8월 31일까지

광양시가 여름철(7~8월) 광양읍 서천·마동 음악분수를 1일 총 5회에서 8회로 확대 운영한다.

서천·마동 음악분수는 주간 3회, 야간 2회로 1일 총 5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 낮시간에 무더위를 식혀주고 야간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음악분수 운영 횟수를 주간 3회에서 5회, 야간 2회에서 3회, 1일 총 8회로 운영한다.

음악분수는 회당 20분씩 주간 3회(낮 12시 30분, 1시 30분, 2시 30분), 야간 2회(오후 8시, 8시 30분) 회당 20분씩 운영하던 기존 운영시간에 주간 2회를 추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과 기상악화의 경우에만 운영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서천음악분수는 생일, 사랑고백 특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음악과 함께 문구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이벤트에 필수장비인 컬러레이저 프로젝터를 교체하고 음향시설 일부를 정비했다.

마동음악분수는 기존 음악분수에 화염연출 장치를 추가 설치해 분수와 화염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특수효과 분수를 연출하기 위해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력제 시스템 개선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배록순 광양시 시설관리과장은 “이번 음악분수 확대 운영으로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주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음악분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광양읍 서천 음악분수.

순천로컬푸드 7주년 기념 백일장 행사 14일까지

순천시가 농협회사법인 순천로컬푸드(주) 설립 7주년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순천로컬푸드 7주년 기념 백일장’을 진행한다. 3일 밝혔다.

순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순천로

컬푸드에서 판매하는 먹거리를 활용한 30자 이내 짧은 글을 공모한다.

순천시 누리집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된 전자 문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에서 대상에 선정되면 순천로컬푸드 상품권 60만원권을 받게 된다.

해당 행사 포스터를 특정 문구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77명에게 순천로컬푸드 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농식품유통과(061-749-4084)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